

수제맥주

시원한

맛 좋은
치킨

전통시장에서 즐겨라

24일~25일 이틀간
모래내시장길에서
'치맥가맥 페스티벌'



전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모래내시장상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모래내시장길에서 '제3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치맥가맥 페스티벌.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전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엄용호, 이하 사업단)과 모래내시장상인회(회장 이완열)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모래내시장길에서 '제3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3회째를 맞는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수제맥주'와 생닭으로 튀겨 식어도 맛있는 모래내시장의 치킨을 맛볼 수 있고, 4~50대 중·장년층에게는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며 시장 상인들과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에 흥을 더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첫날인 24일에는 TV 공개녹화로 진행되는 모래내시장에 가수 소찬휘와 클럽DJ-춘자가 특별출연하는 등 개막축하소가

펼쳐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래내스타킹'과 '모창가수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코요테의 신지가 특별출연하고 전주의 쇼 전문 프로밴드인 흥기밴드가 추억의 7080음악을 선사한다. 여기에, 행사기간 내내 △수제맥

주 열전(내취향을 찾아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모래내시장' 5행시 짓기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완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지난해 치맥가맥페스티벌에 예상보다 많은 1만여 명의 시

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했다"며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지난 두 차례의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사항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준비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더위를 날리고 전통시장의 옛 추억과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돈 때문에' 동료 살해 후 시신 소각 미화원 '무기징역'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추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교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재판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어 피해 회복 위한 별다른 노력 기울이지 않아"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

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증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은 점 등 공통점이 많으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이씨가 범행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락한 대로 걸린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뉴시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전주시,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전주시는 17일 분청 4층 회의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환이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사를 초청, 일선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CPR),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위기상황에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

원들은 심폐마네킹을 이용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강사는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75% 이상의 생명을 보이지만, 5분 이상 지체 하면 뇌손상, 뇌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올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전주시가 고질·삼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키로 했다.

시는 세입목록 초과과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201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02억원을 징수목표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감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675억원에 대해 먼저 납부 최고서로 독촉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동시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산하 합동 현장 징수단을 가동, 부서의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및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가족관계 성장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시 완산구는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는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가족관계 성장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완산구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부모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063-232-0334)으로 신청하면 된다.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며 돈

독한 가족에 형성을 위해 완산구청과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두 기관은 지난 3월 협약식을 갖고 상반기 '가족관계 성장프로그램'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 할 예정이다. 아동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 자녀양육코칭 프로그램, 부모-자녀 요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한국잡월드서 희망직업체험

덕진구는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지역아동센터 41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희망직업 체험활동을 했다.

덕진구와 덕진노인복지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작은 소원 들어주기 사업'의 일환인 '희망활동'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날 아이들은 은행원,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한국잡월드의 생

생한 환경에서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적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웠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이번 직업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의 품격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행복한 인재를 키웁니다'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시, 27일까지 선착순 모집
2019 틈움활동단도 함께 모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를 통해 학습에만 매몰됐던 청소년들을 자기주도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해 자치프로젝트를 수행할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야호학교는 그간 학습에만 매몰됐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말·방과 후 학교다.

야호학교 2기 참여자들은 약 3개월간 자신들이 스스로 고민하며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활동성과를 야호학교 참가자 전원과 부모님 등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이 도전과 경험에 나설 수 있도록 특별 프로젝트 활동비와 특별 길잡이 교사, 다양한 영역의 지역 전문가들을 연계한 지역 교육플랫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야호학교 청소년이 자기 주도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숨은 조력

가 역할을 수행할 '야호학교 2019 틈움활동단'도 함께 모집한다.

틈움활동단은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에 관심 있는 만18~49세 전주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양성 교육을 수료자에 한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자치활동 및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틈움활동단 양성 교육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틈움활동단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야호학교 프로젝트 팀별 길잡이 교사 활동 및 지속적 보수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이에 앞서, 야호학교 1기 참여 청소년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각자 스스로 기획한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탐색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전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난 상반기에 야호학교 로컬 프로젝트와 학교연계 특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2기에도 더욱 향상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호학교 참가 신청 접수는 (http://naver.me/5X5dtdD8)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틈움활동단 신청 접수는 (naver.me/GtPVA0k) 또는 이메일 (haengintop@daum.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교육청소년과(063-281-5310~1)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일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꿈찾기프로젝트(꿈바라기)의 일환으로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전략캠프인 '시간 관리의 달인은 나야 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간 관리의 달인은 바로 나'

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찾기프로젝트 성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일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꿈찾기프로젝트(꿈바라기)의 일환으로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전략캠프인 '시간 관리의 달인은 나야 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공부와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 참여자들은 MMTC 성격유형검사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시간관리 전략에 대하여 배우는 3개의 소집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학습상담전문가 6명이 강사로 나서 참여 학생들이 개별적인 코칭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꾸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전일초 5년)은 "성격검사와 시간관리 유형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를 잘 알 수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활동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시간관리 방법과 흥미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91년 1월에 설립돼 이듬해인 1992년 4월부터 전주YWCA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전문기관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청 간부 여직원

성추행 혐의 입건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소속 간부가 입건됐다.

완산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전주시 5급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하 여직원인 B(26)씨와 악수를 하며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